



중국 고전을 통해 본
청년의 의미와 역경 극복

林東錫

以文会友



作隨



心



愛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
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
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己丑小亭錄孟子告子章句

丘明



<孟子> 天將降大任



吾少也

賤故多

能鄙事

論語

陶仁志書



死而後已

壬辰年冬

龔社書



負郭寧齋

丘堂題



下
世
村
六
日
申
不
上
家
和
平
安
萬
事
如
意

東
初
光
正

鐵
筆



醉 碧 軒

蔡國端午
丘堂題



欲



窮

千里

目

更

上一層

樓

壬辰年
陶仁志
字雲之



與人不求備
檢身若不及

壬辰文師華書



象犀珠玉珍怪之物有悅於人
之耳目而適於用之用之則弊
取之竭之於人竭之賢
不肖之所得者因其求無不獲
者惟書乎
其分才力不同而求無不獲者
惟書乎
隨賢

丁亥菊秋錄
東坡李氏山房藏書記
丘堂呂元九



林東錫中國思想100

명심보감

$\frac{1}{2}$

明心寶鑑 范立本 編/林東錫 譯註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마음 밝히는 보배 거울
청주판 초간본에 월남판 Minh Tam Bao Ciam 더해
사상 최초 완전복원 《명심보감》 탄생!

新刊大字明心寶鑑上

子白繼善篇第一凡四十七條

子曰爲善者天報之以福爲不善者天報之以禍
○尚書云作善降之百祥作不善降之百殃○徐
神翁曰積善逢善積惡逢惡仔細思量天地不錯
○善有善報惡有惡報若還不報時晨未到○尚
書云作善自福生作惡自灾生○福在積善禍在
積惡○平生作善天加福若是愚頑受禍殃善惡
到頭終有報高飛遠走也難藏○行藏虛實自家

明心寶鑑序

養安院藏書

夫為人在世生居中國稟三才之德為萬物之靈感天地覆載日月照臨

皇上水土父母生身聖賢垂教而從教者達道為先非博學無以廣知不明心無以見性雖有生而知之者近世奇稀昔夏禹王聞善言猶然下拜何況凡人乎曩古聖賢遺誌經書千言萬語只欲教人為善所以立仁義禮智信之法

明心寶鑑序

明心寶鑑者何爲而作也
古之人憂後學之徇利忘
義而作也蓋人之生有夭
命之性有氣質之性天命

明心寶鑑凡例

一露堂先生稟尊詔後學之書獨賴此篇之存
而世遠板刻多有訛誤故攷正鋟梓
一篇內所引只就賢聖格言短章取義故以隨
錄先後不以世代次序

一命篇次第似有異於八條先後而此非循序
用工之書只是隨處示戒之言故仍舊編錄
一異家子流列於篇中者雖無害於聖人擇言
之道而至於衛正之義不可不嚴故更加校
正首先聖訓

茁浦藏書

增補
吐解
無雙明心寶鑑

交遊篇	二	팔반가팔슈	八七
婦行篇	三	효행편속	九一
增補篇	六	廉義篇	九五

懸吐具解
校正增補

新無雙明心寶鑑

目次終

懸吐具解
校正增補

新無雙明心寶鑑

繼이올게
善작할선
篇작편

<1>

繼善篇

子曰爲善者天이報之以福爲不善者天이報之以禍

○子孔子니
後皆倣此라

0/0

子一加라사대, 착함을하는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고, 착하지못함을하는자

烈매울렬
勅신작할

漢昭烈將終 勅後主曰勿以善小而爲勿以惡小而

爲之하

○昭烈의名은備오字는玄德이오
後主의名은禪이니昭烈의子也라

한나라, 소열왕대가, 장차, 죽을때에, 후주에게, 조칙하야갈아대, 착한것이면저

莊子曰一日不念善諸惡皆自起

○莊子의
名은周라

장자一加라대하로도착함을, 생각지아니하면, 모든, 악한것이, 다, 스사로, 일어

藥일용기
變불꽃
早아침조
婢종비
躍일현
獻드릴현
柴나루시
獸마리태
楣문지방
盡었지함
俯아루릴
竊극한전
蕭속소
介차할개
誓맹세서
憲법흔

762

소루개가, 그숨을 가져다가, 인관에 집에, 떠러치거날, 인관이, 서도에게로, 돌너
보내야, 갈아대, 소루개가, 네숨을내집에, 떠러친고로, 네게, 돌너보내노라한
대, 서도갈아대, 소루개가, 숨을집에다가, 너를주든, 하날이라, 내었지맛으리
오, 인관이갈아대, 그러면, 네곡식을, 도로보내리라, 서도갈아대, 내가, 너를준
지가, 두장날이니, 곡식은, 임의네게, 붓친것이라하고, 두사람이, 서로사냥하
가, 숨과곡식을, 저자에바렸더니, 저자치지한관원이, 싸인군에게, 들니여
다며살을주니라

洪變少貧甚無料一日早婢兒雙躍獻七兩錢曰此
在鼎中米可數石柴可數駄天賜天賜公子驚曰是何
金即書失金人推去等字付之門楣而待俄而姓劉者
來問書意公悉言之劉曰理無失金於人之鼎內果天
賜也盍取之公曰非吾物何劉俯伏曰小的昨夜爲
竊鼎來還隣家勢蕭條而施之今感公之廉价良心自
發誓不更盜顧欲常侍勿慮取之公即完金曰汝之

懸吐具解新無雙明心寶鑑

舅의상촌
구

啼을제
戲회통회
溫다살온
嫁가집갈

763

爲良則善矣金不可取終不受後公爲判書其子
在龍爲憲宗國舅劉亦見信身家大昌

홍기성이, 소시에, 집이심이, 가난하야, 헤아림이업더니, 하루아침에, 종이, 돈닐
곰냥을, 들며갈로대, 이것이, 솥속에잇스니, 쌀두섬, 나무두어바리가되겟스니,
하날이, 주심이니다, 공이, 놀나갈아대이어인돈인고, 즉시, 돈일은, 사탐을, 차자가
라고써서, 문지방에, 붓치고, 기대리더니, 이윽고, 류가, 성쓰는이가, 와서, 방북친
뜻을, 못거날, 공이, 실지로, 말한대, 류가가, 갈오대, 남의, 솥속에, 돈일이, 바릴자는
업스니, 과연, 하날이, 주신것이라, 엇지, 쓰지안는이가, 공이, 갈아대, 내돈이, 안인
대었지, 가지리오, 류가, 부복대, 왈, 소인이, 어제, 밤에, 솥을, 도적, 하려왔다가,
대형세가, 넘어, 구차함을, 보고, 도로혀, 가엾서, 두고, 갔더니, 지금, 공에, 청렴개
결하심에, 감복하와, 어진, 마암이, 절노, 말하와, 맹서코, 다시, 도적, 절안코, 항상,
외시고져, 원하오니, 녀며, 말고, 쓰소서, 공이, 꽃돈을, 내여, 주며, 갈아대, 네가, 양민
된다함은, 요호니, 돈은, 가질, 수업다하고, 마참내, 밋지안이하더니, 그후에, 공이
판서, 세지하고, 공의, 아들, 재룡은, 현종, 대왕의, 부원군, 이되고, 류가도, 신임을, 뵈
야, 집안이, 크게, 창성하니라

高句麗平原王之女幼時好啼王戲曰以汝將歸于
愚溫達及長欲下嫁于上部高氏女以王不可食言

懸吐具解新無雙明心寶鑑

茁浦藏書

한글
註解
明心寶鑑

附玉篇

林東錫

諸_제 _여 _것 _저 _之 _於 _勿 _不 _母 _莫

繼善篇 出浦藏書

子曰爲善者天報之以福爲不善者天報之以禍

孔子라
後曾傲此

(意)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화를 주느니라

漢昭烈將終勅後主曰勿以善小而爲勿以惡小而爲

之

(意) 한나라 후주의 명은 昭烈의 이름은 備요 字는 玄德이라 후주의 명은 昭烈의 이름은 備요 字는 玄德이라

莊子曰一日不念善諸惡皆自起

(意)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스스로 일어나느니라

太公曰見善如渴聞惡如聾又曰善事須貪惡事

莫樂

(意) 태공이 말하기를 잘한 것을 보거든 욕망할 때 물본듯이 주지 하지 말고 착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또 말하기를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할 때 그 악한 일이란 즐겨 하지 말라

林東錫中國思想100

채근담

$\frac{1}{2}$

萊根譚 洪自誠撰/林東錫譯註



“사람이 항상 나물뿌리 씹어먹을 수 있다면
천하에 그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랴!”
춘철살인의 단구 명언 도가적 수양서

중국판 명심보감 표지



賢文

林東錫中國思想100

석시현문

昔時賢文 作者未詳/林東錫 譯註



昔時賢文。無古不成。今知已知。彼將心比心。猶如
知己。飲詩向會人。吟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相逢好似初相識。到老終無怨恨心。近水知魚
性。近山識鳥音。易漲易退山溪水。易反易覆小
人心。運去金成鐵。時來鐵似金。讀書須用意。一
字值千金。逢人且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
有意栽花花不發。無心插柳柳成陰。畫虎畫皮
難畫骨。知人知面不知心。錢財如糞土。仁義直

增廣下卷

前人俗語。言淺理深。補遺增廣。集成書文。世上
無難事。只因不專心。成人不自在。自在不成人。
金憑火煉。方知色與人交。財便見心。乞丐無種。
懶惰自成勤。為無價之寶。忍為眾妙之門。省事
儉用。免得求人。量大福也大。機深禍亦深。善為
至寶。生生用心。作良田。世世耕。羣居防口。獨坐
防心。無病休嫌瘦。身安莫怨貧。敗家子弟用金
如糞。成家子弟積糞如金。貧富非關天地。禍福

清 道光 19년(1839) 《明心寶鑑》. 표지와 상하권 도입부분. 내용은 《昔時賢文》과 《增廣賢文》을 싣고 있어 《명심보감》과 전혀 다름. 해제 참조.

TẠ THIANH BẠCH
dịch chú

ĐỀ MỤC

明 心 寶 鑑
MINH TÂM BẢO GIÁM

DỊCH VÀ CHÚ THÍCH RÕ RÀNG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THIỆN THỮ NHẤT

繼 善
KẾ THIỆN

(Kế tiếp làm thiện để giữ bản tính của trời cho)

子曰: 爲 善 者 天 報 之
Tú viết: vì thiện giả thiên báo chi
Đức Khổng nói rằng: làm thiện, lành ấy trời báo chúng, đấy
以 福; 爲 不 善 者, 天 報
di phúc; vì bất thiện giả, thiên báo
lý phúc; làm chẳng thiện ấy, trời báo
之 以 禍.
chi dĩ họa.
đấy lý họa.

Khổng Tử nói: "Người làm điều thiện (o lành) thì trời sẽ ban lại phúc cho; kẻ làm điều bất thiện (ô ác) thì trời sẽ bắt gặp tai vạ".

尚 書 云: 作 善 降 之 百
Thượng Thư văn: Tác thiện giáng chi bách
Sách Thượng Thư rằng: Làm thiện xuống đấy trăm

祥; 作 不 善 降 之 百 殃.
hương; tác bất thiện giáng chi bách ương.
diễm lành; làm chẳng thiện xuống đấy trăm vạ.

MINH TÂM BẢO GIÁM

Sách Thượng Thư nói: "Người làm điều thiện, trời sẽ ban cho trăm phúc, kẻ làm điều bất thiện, trời sẽ giáng cho trăm họa".

徐 神 翁 曰 積 善 逢 善,
Tư Thần Ông viết: Tích thiện phùng thiện.
Tư Thần Ông rằng: Chứa thiện, lành gặp thiện, lành,
積 惡 逢 惡. 仔 細 思 量,
lích ác phùng ác, tử tế tư lượng,
chứa ác, đơ gặp ác, đơ kỳ lường nghĩ lường.
天 地 不 錯.
thiên địa bất thất.
trời đất chẳng sai, lầm.

Ông Tư Thần Ông nói: "Chứa thiện gặp thiện, chứa ác gặp ác. Phải suy nghĩ kỹ càng, chớ làm điều gì trái với trời đấ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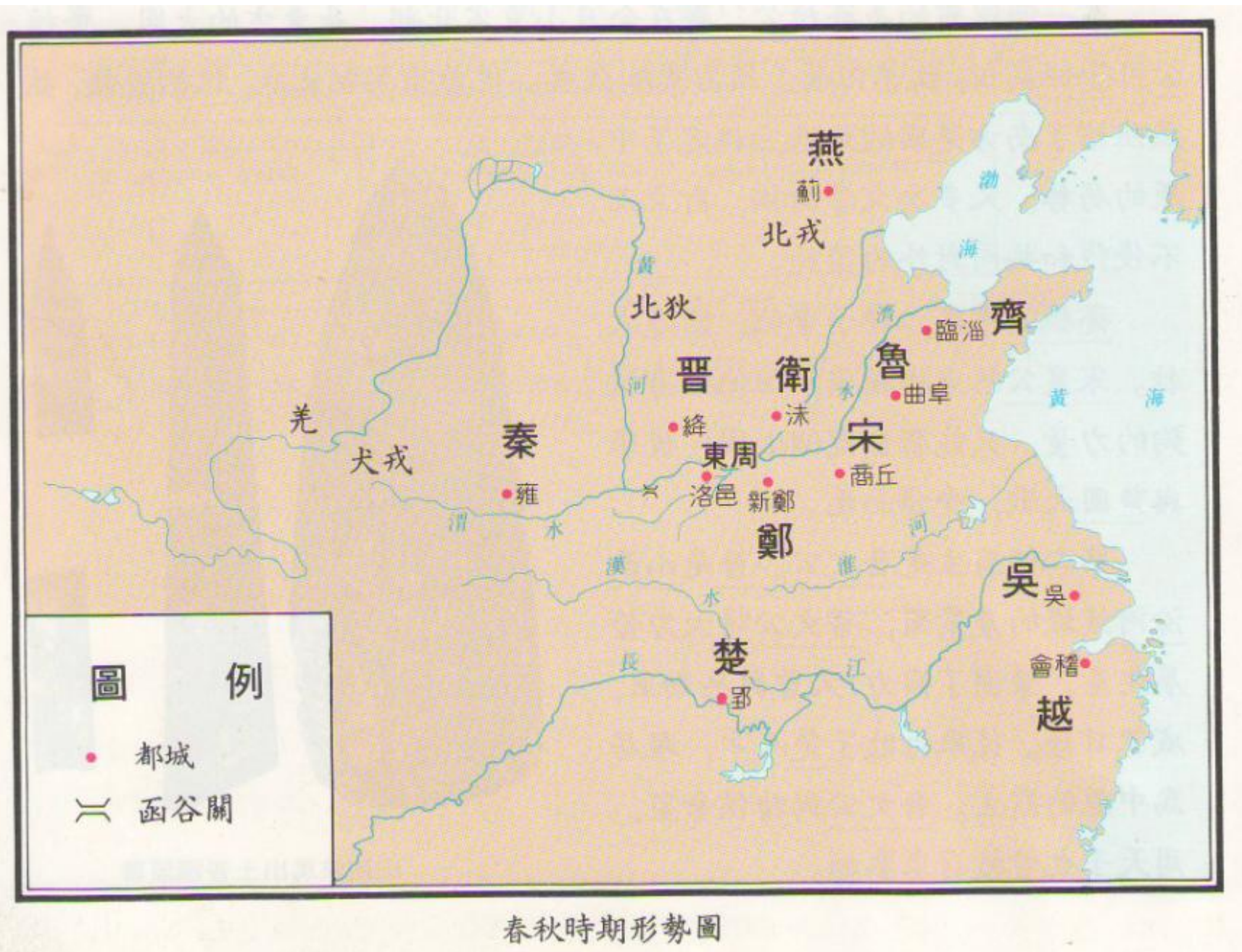
善 有 善 報, 惡 有 惡 報;
Thiện hữu thiện báo, ác hữu ác báo;
Thiện, lành có thiện, lành báo, ác, đơ có ác, đơ báo;

若 還 不 報, 時 辰 未 到.
nhược hoàn bất báo, thời thần vị đáo.
nếu còn chẳng báo, thì thời giờ chưa đế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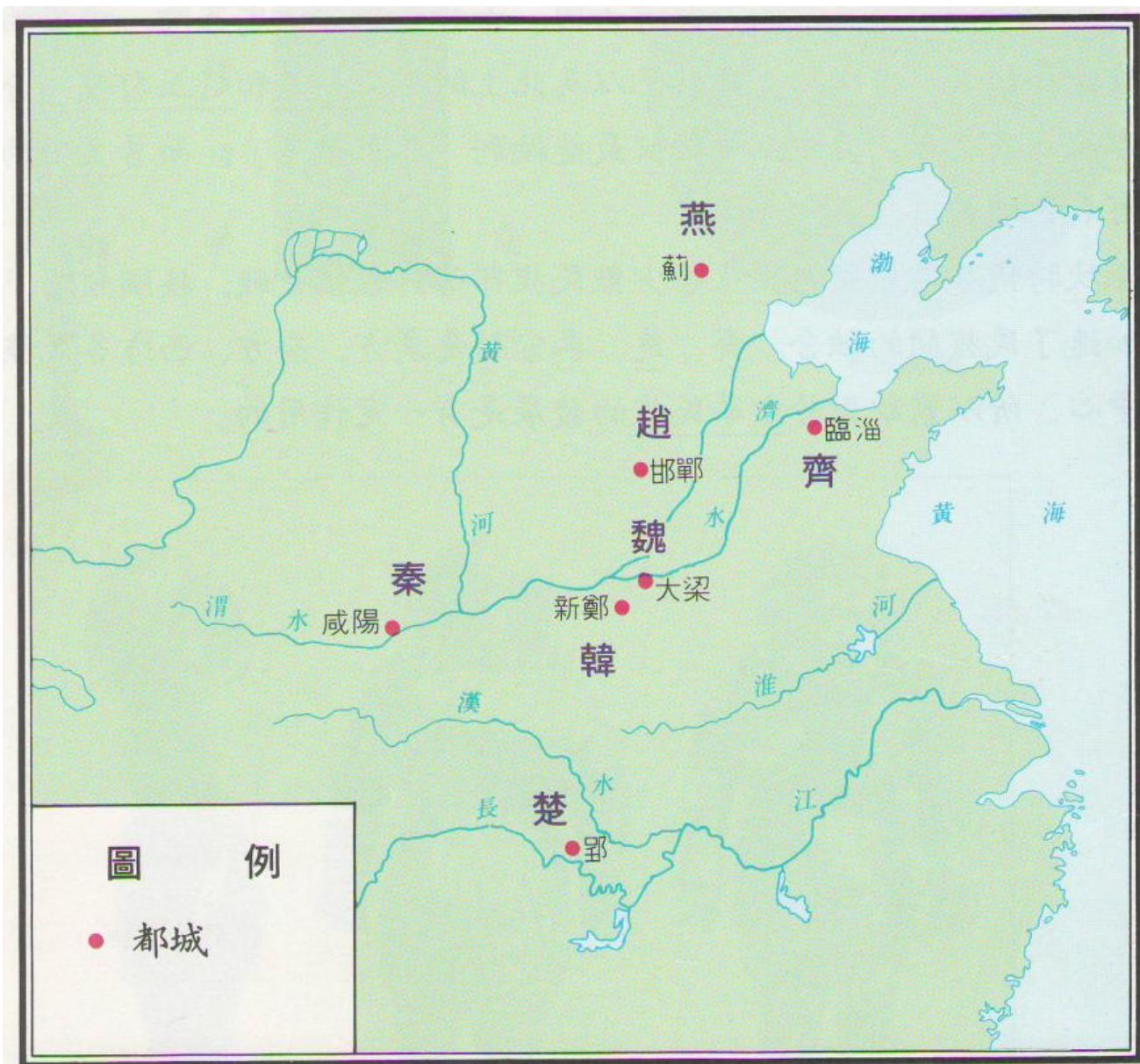
Ồ thiện có thiện báo, ô ác có ác báo, hiện thời chưa thấy báo là chưa đến lúc vậy.



中國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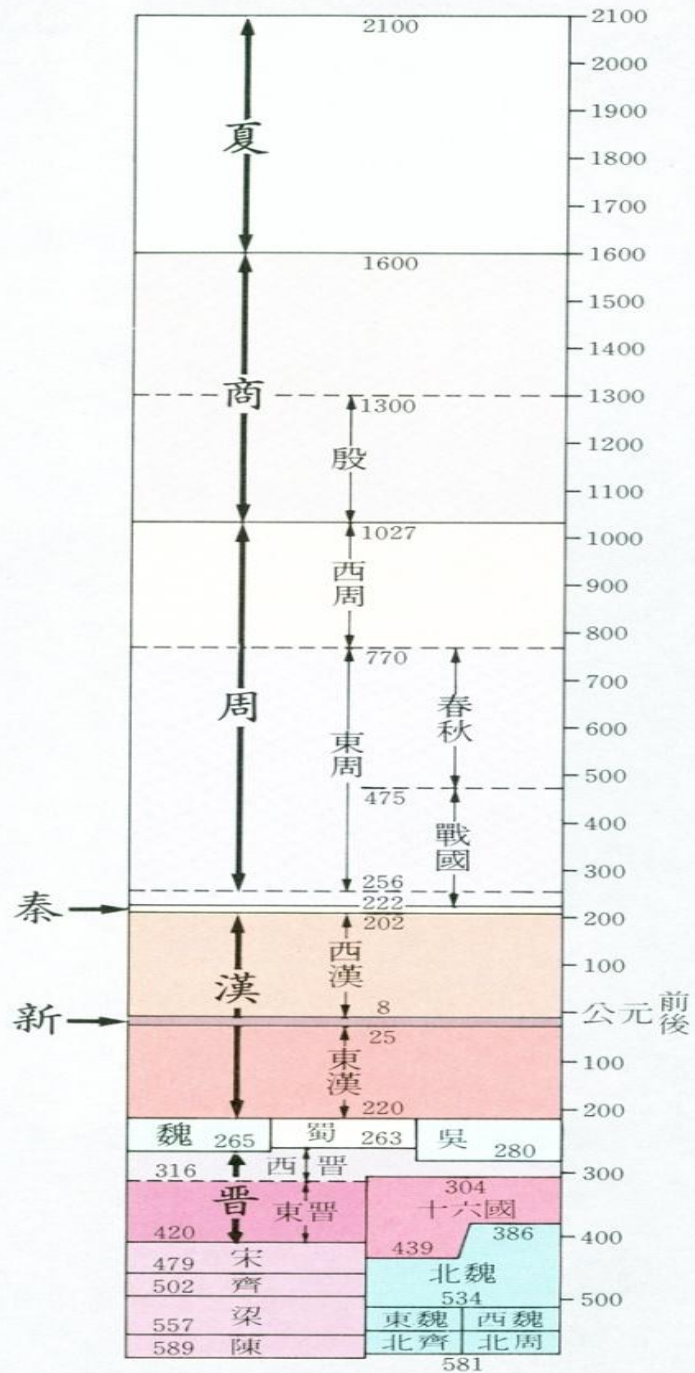
春秋時期形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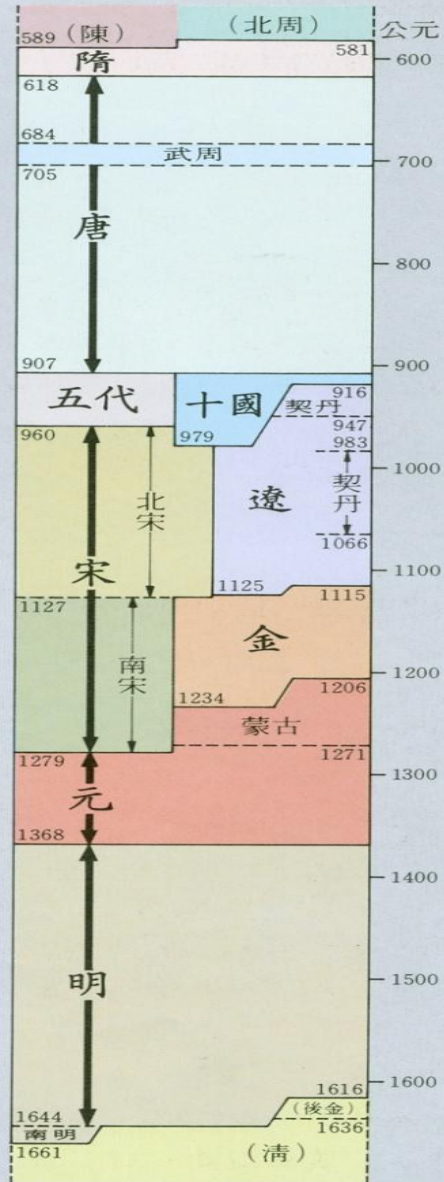
戰國七雄形勢圖

中國歷史發展略圖

(夏代至南北朝)



中國歷史發展略圖 (隋朝至明朝)





水月



正氣

陶仁志書



花石亭詩

(八歲賦詩)

林亭秋已晚 숲속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드니,
騷客意無窮 시인의 시상(詩想)이 끝이 없구나.
遠水連天碧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 서리맞은 단풍은 햇별을 향해 붉구나.

山吐孤輪月 산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江含萬里風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더듬었네.
塞鴻何處去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고?
聲斷暮雲中 울고 가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이 야 지음
임 동 석 옮김

감사합니다!

